

금타 노조 “고용보장 자료 달라”... 입장 변화?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차이용선 회장 산은서 간담회 “독립경영 보장”

“해외 매각 반대”서 선회... 파국 피할 변곡점 되나 관심

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측에 국내 공장 경영계획 및 고용보장을 담보할만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인수후보자를 상대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기존 ‘해외매각 반대’를 고수해온 노조 입장에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중인 더블스타 차이용선(柴永森) 회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금호타이어 노조와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국’을 피할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2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산업은행측을 통해 더블스타 회장과의 면

담에 앞서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노조측은 자료 검토를 거쳐 회담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우선,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만한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법인 10년간 경영계획 ▲고용 보장을 담보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다.

사측과 재권단은 ‘더블스타의 매각은 대주주 변동에 불과해 단체협약 및 고용이 법률상 보장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공장 축소, 폐쇄 등의 경영정책이 실현될 경우 국내 고용보장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10년간 경영계획을 비롯, 고용을 보장할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는 또 ▲더블스타의 재무제표·생산능력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추이 ▲더블스타 자체의 장기적 경영전망 및 근거 ▲금호타이어 인수 자금 관련 지표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중국공장) 정상화 계획 및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금호타이어 국내 법인 설비투자 규모·계획 등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블스타의 부채총액이 4325억원(2014년)에서 2017년 3분기 8541억원으로 상승한 점 등 불안한 경영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역 경제계는 노조측의 자료 요청 사실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떡꾸’ 우러 등을 들어 고수해온 ‘절대 불가역’에서 신뢰할 경영계획을 보유한 수준에서의 ‘해외매각 검토론’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그러나 “조합원들과 지역 경제계에서는 극히 우려할만한 소식이 전해지는 데도, 산업은행 및 더블스타는 신뢰할만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매각 동의만을 주장해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차이 회장은 이날 서울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 내 국유기업 3개사와 함께 인수하는 것이어서 충분한 자금이 있고 이미 인수 자금도 확보됐다”면서 “지리자동차가 불보차를 인수한 사례처럼 금호타이어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노조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 소통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뒤 이날 오후 7시30분께 광주에 도착, 노조와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6.02 (+11.05) ↓ 금리 (국고채 3년) 2.26% (-0.04)

↓ 코스닥 871.62 (-13.93) ↑ 환율 (USD) 1072.70원 (+0.40)



쑤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가 22일 보해양조 장성공장을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왼쪽부터 장동 영사, 임지선 대표이사, 쑤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 하조영 부영사. (보해양조 제공)

쑤시엔위 中 총영사 “보해 설비 인상적”

장성공장 방문... 중국시장 매출 확대 방안 등 논의

쑤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가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 장성공장을 방문, 자동화된 최첨단 생산설비에 관심을 나타냈다.

22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쑤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는 장동 영사, 하조영 부영사 등과 이날 보해양조 장성공장을 방문해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과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중국 시장의 매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쑤시엔위 총영사는 보해의 자동화된 생산시설이 인상적이라며 보해양조 생산제품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오는 11

월 중국 상해 국가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소개하며 광주전남 대표기업인 보해양조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하 253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압반수로 만든 보해양조 제품의 생산과정을 보기 위해 국내외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장성공장을 찾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일제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공장견학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유재산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캠프, 반부패·청렴 결의대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22일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총장의 분부장을 비롯,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기획재정부 소관 광주·전남 국유일반재산 9만9000여필지를 전담·관리하는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총장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국유재산의 가치·국가재정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면서 국민 신뢰를 받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은행 총 자산 8000억원 증가

주주총회... 지난해 순이익 1342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사진)은 22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4기(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 결과 2017년말 광주은행의 총자산은 23조 4000억원으로 2016년말 22조 6000억원 대비 8000억원 상당이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이자수익자산 확대에 따른 이차이익 증가로 1342억원(연결기준)을 확정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장명철, 김상국, 강상백 사외이사는 1년 연임됐으며 지병문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모든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2018년에도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출퇴근 시간 직원이 결정

워라밸 트렌드 확산... 시차 출퇴근제 도입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다음달 1일부터 직원들이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트렌드가 확산하는데 따른 것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 직원들은 이에따라 오전 8시~9시30분 사이 30분 단위로 출근 시

간을 선택할 수 있다. 출근 후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자율적으로 퇴근하면 된다.

금호아시아나는 시차출퇴근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 운영 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등을 둔 직원들이 아이들을 등교시킨 뒤 출근할 수 있고, 불필요한 야근이 줄어드는 등 직원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효성, 세계 고객사 찾아 ‘밀착 마케팅’

내달부터 유럽·미주지역 순회 워크숍 진행

효성이 전 세계 고객사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신규 원단 개발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밀착 마케팅’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효성은 다음달부터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고객사들을 찾아 ‘크레오라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효성은 지난 14일부터 2주 일정으로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고객사들을 찾아 ‘크레오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크레오라 워크숍은 효성이 고객사에 회사별 특성에 맞는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스파르텍스나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효성의 원사를 활용한 새 원단

개발을 제안하는 밀착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효성은 2주 일정의 아시아 지역 ‘크레오라 워크숍’을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인 갭(GAP)의 홍콩지사,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안타(ANTA)와 대형 봉제업체인 레지나 미라클, 크리스탈 마틴 등 20개사를 찾았다.

회사 관계자는 “아시아 고객사 방문에 앞서 한솔, 팬코 등 국내 고객사들과도 워크숍을 진행했다”면서 “지난 9일 베트남 패션기업인 ‘패션스타’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시장 진출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더스트 크리너

백필터 / 카트리지 / 싸이클론 형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